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추억속의 명콤비들 돌아온다

카니발

〈김동률〉

〈이적〉

더 블루

〈손지창〉 〈김민종〉

아련한 추억으로만 기억됐던 명콤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들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녹슬지 않은 관록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1986년 '쇼 비디오자키'(KBS)에서 아프리카 원주민 화장을 하고 '시커먼스'를 외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이봉원과 장두석이 다시 뭉친다.

봄 프로그램 개편에 맞춰 '웃찾사'(SBS)를 통해 본격적인 개그계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 당시 이봉원은 '동작그만'에서 '곰팽이'로, 장두석은 '부채도사'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다.

이미 지난해 '스타 골든벨'(KBS)에서 '키컸으면'의 이수근, 정명훈과 함께 깜짝 무대를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터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은 개그 아이템 구성 중에 있으며 후배 개그맨들과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중이다.

90년대 초·중반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김민종과 손지창도 프로젝트 듀오 '더 블루'로 돌아올 예정이다. 당시 연기자 및 가수로 인기 정상을 달렸던 이들은 지난 1992년 '더 블루'를 결성, '너만을 느끼며' 등을 발표해 가요계 정상을 차지하는 등 10대 소녀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시커먼스'의 이봉원〈왼쪽〉과 장두석.

현재 손지창이 예전 히트곡들을 재편곡한 베스트 앨범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블루'가 재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폐지됐던 '수요예술무대'(MBC)에서 공동 MC로 8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현우와 김광민은 3년 만에 재회한다. 오는 5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08' 첫날 무대에 나란히 선다.

지난 21일에는 어쿠스틱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사랑받았던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의 이적과 김동률이 '윤도현의 러브레터'(KBS)에 함께 출연,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음악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땐 그랬지' '거위의 꿈' 등 카니발 시절 히트곡을 열창해 방청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적의 텐텐클럽'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적은 '다행이다' 등으로 지난해 음악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며, 얼마 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상을 비롯해 4관왕을 석권했었다.

김동률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의 대형공연을 준비중이며 올해 최고의 음반 판매량(3월 현재 7만장)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고교생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70년대 하이틴 영화의 얄개 시리즈 주역인 김정훈, 진유영, 이승현이 '네버엔딩 스토리'(MBC)에서 30년 만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 올드 팬들을 감회에 젖게 했다.

진유영은 영화감독, 대학교수 등으로 변신을 해 꾸준히 영화인의 길을 걷고 있고, 꼬마 신랑으로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김정훈은 사업가로 변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상상플러스' 이효리 투입

KBS 2TV 오락프로그램 '상상플러스'가 이효리〈사진〉 투입 등으로 MC 진용을 새롭게 하고 '시즌 2'로 재탄생한다.

'상상플러스'는 봄 개편을 맞아 다음달 8일 방송부터 이효리와 기존 MC인 탁재훈과 신정환의 3인 체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최송현 아나운서, 이휘재, 유세윤은 프로그램을 떠난다.

MC 조합의 변화와 함께 프로그램 구성도 크게 바뀐다.

연출을 맡은 윤현준 PD는 "현재 3~4가지 코너를 놓고 논의 중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면서 "앞 코너는 MC들과 게스트의 토크 위주가 될 것이며 뒤 코너는 재미와 함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체력 달려 힘들었지만 인생 활력 얻었죠"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 김지호

"인생의 활력을 얻었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입니다. 촬영하면서 잃은 것은 체력뿐이에요."

지난해 10월부터 MBC TV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에 출연하며 숨가쁜 스케줄을 소화해 온 김지호(34)는 이제야 한숨 돌리는 표정이었다.

시청률이 20%를 훨씬 웃돌며 아침드라마 가운데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다, 4월 초 종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내가 출연한 작품 가운데 가장 열심히 촬영한 드라마라고 자부해요. 촬영이 있는 날이면 두 시간 전에 미리 세트장에 와서 동선을 외우는 등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가 이 드라마에서 맡은 캐릭터는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신발 디자이너 역이다.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참고 누르는 연기가 많았어요. 섬세한 감정 표현 연기에 욕심을 냈습니다. 깊이 있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체력이 부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운전 중 접촉사고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링거를 맞기도 했다.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후에는 목 근육을 움직일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드라마를 찍으며 광고에도 많이 출연했다. 재미있는 것은 국민연금 홍보광고,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홍보광고 등 대부분이 공익적 성격의 광고였다는 점이다.

"드라마 캐릭터가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로서의 이미지와 함께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드라마 출연 전 연극 '2007 클로져'에 출연한 바 있는 김지호는 6~7월께 다시 연극무대에 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3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숙명	35만6천776	44만129
2	10,000 BC	23만8천661	91만2천580
3	추격자	22만5천27	444만5천287
4	스텝업 2:더 스트리트	22만1천942	70만8천848
5	천일의 스캔들	13만4천471	15만7천410
6	밴티지 포인트	4만5천839	98만7천965
7	바보	4만5천324	95만1천573
8	워터호스	4만869	4만6천699
9	어메이징 그레이스	3만7천756	4만6천740
10	브레이브 스토리	1만7천	21만7천554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9.7
2	이산	MBC	29.1
3	엄마가 뿔났다	KBS2	25.4
3	조강지처클럽	SBS	24.2
5	행복합니다	SBS	24.0
6	그래도 좋아	MBC	22.2
7	무한도전	MBC	21.7
8	아현동 마님	MBC	21.0
9	KBS 뉴스 9	KBS1	20.6
10	해피투게더	KBS2	19.9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베오울프	액션
2	식객	드라마
3	원스어폰어타임	코미디
4	세븐데이즈	스릴러
5	색, 계	드라마
6	본 얼티메이텀	액션
7	마이클 클레이튼	스릴러
8	뜨거운 것이 좋아	드라마
9	어거스트 러쉬	드라마
10	써티데이즈 오브 나이트	공포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원 모어 타임	쥬얼리
2	미안해요	거미
3	러브	브라운아이드걸스
4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비치
5	만약에	소녀시대 태연
6	키싱 유	소녀시대
7	사랑해	마이티 마우스
8	보고싶은 날엔	박지헌
9	남자때문에	주
10	처음처럼	SG워너비

〈자료제공:멜론〉